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snuarta@naver.com 밴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 '서울대미술인 1946-2023' 발간



본회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을 발간해 12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도록은 소장가치를 높

이고자 한정판으로 제작되며 사전구매 신청을 받는다. 도록에는 시각예술 분야는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영화, 공연, 저서 등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023년도 신입동문까지 3000여명의 미대 동문의 실적이 수록된다. 본 도록은 대외적으로는 서울대 미대 졸업생들의 활약상, 대내적으로는 선후 배간의 인지도 향상, 나아가 미대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무후무한 자료집이 될 것이다. 도록은 페이지 당 9명의 이미지 및 경력이 수록되어 총 350p에 달하며 규격은 290x225mm이다. 사전신청은 부수 제한이 없다. 단, 올해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 사전구매 신청

신청:방법 :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성명, 학번, 학과 명시)  
사전회원구매가 : 5만원(정가 15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문의: 02-555-1946

본회소식



야식지원사업

본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졸업전시나 학기 말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간작업을 하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야식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야식사업은 2019년부터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실시해 온 모교지원사업이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번보다 기간을 1주 연장하여 3주간 화, 목요일에 본회 서울대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컵라면과 구운계란, 에너지바를 제공한다. 첫날 오전부터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은 다양한 컵라면을 보고 즐거워했으며, 소문이 퍼지면서 준비된 간식이 빠르게 소진됐다. 현재까지 매회 평균 150여명의 학생들이 방문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작업하는 중에 생긴 이벤트를 무척 반갑게 받아들이며 작업 중인 동기, 선배들의 손을 잡고 삼삼오오 찾아와 바쁜 외중 잠시의 활력을 얻어갔다. 이번 야식지원사업에 대해 모교 학생회 신임회장 윤술하(22동양) 학생은 "지난 학기의 컵라면도 야식으로 가볍게 먹기에는 너무 좋았지만, 에너지바와 구운계란 같은 조리가 필요 없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동창회 측과 얘기가 잘 되어 지원 받을 수 있어서 학생들 모두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부회장 박서영(22서양) 학생은 "계란과 에너지바가 건강하고 가볍게 당을 채우기에 좋습니다. 라면, 계란, 후식으로 에너지바까지, 그 조합이 완벽했습니다"라며 지난 학기보다 다채로워진 야식 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한달에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 더 주세요", "라면 이외에 곁들이는 음식이 추가돼서 더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면 두개 주세요"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

**아작하는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간식 무료제공!!!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b>화요일</b>	<b>목요일</b>
11월	21 28	23 30
12월	05	07

10시~17시  
미대 50동 311호(동창회 사무국)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 미술대학동창회

회장동정

디자이너 명예의전당 헌액식



지난 11월 3일 오전 10시 코엑스 4층 401호에서 본회 회장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제9대 헌액자로 헌액식을 가졌다.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은 디자인 산업 발전

에 공헌한 디자이너의 업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7인이 헌액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헌정포럼 초청 특강

지난 11월 27일 오후2시 본회 회장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헌정회관 1층에서 자유헌정포럼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강연자로 초대되었다. 이날 권회장은 '새로운 용산시대 : 3차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동문 소장품전

**마이컬렉션**

2023. 12. 11-17  
10:00 - 19:00 (휴일없음)  
SNU장학빌딩 2F 베리타스홀  
서울 마포구 새창로7

마이컬렉션 개최

본회는 서울대동창회와 함께 오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서울대 동문 소장 작품전 '마이컬렉션'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 동문 및 단체가 소장한 작품들을 특별할인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익금은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기금 및 미대 창작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전시에는 1946년 이후 제작된 회화, 조각, 공예작품 120여점이 출품된다. 특히 서울대총동창회(관악회)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은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된다. 관람시간은 오전10시-오후7시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문의: 02-877-8065)

**S-ARTMALL**

**! 미대동창회 기념품 판매 !**

새로운 SOUVENIR 카테고리 신설  
미대동창회만의 굿즈들을 만나보세요

다용도 도자필통

미대로고가 들어간 캔버스 앞치마

미대로고가 들어간 여행용 위시백

서울대 동문 특별할인 제공  
총동창회물 'Mall SNUA' 입점(브랜드관 S-ARTMALL)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sartmall.com

모교소식

10-10 프로젝트: 박재훈, '가상 세계의 회화적 공간'



지난 11월 23일 모교 74동 오디토리엄에서 '가상세계의 회화적 공간'이라는 제목의 멘토링 강연이 개최되었다. 강연자인 작가 박재훈(05서양) 동문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조각가, 애니메이터, 시뮬레이터이다.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예술학교 Royal Academy of Art The Hague에서 Artistic Research 석사과정을

마쳤다. '파생 풍경' 성곡미술관, '실시간 연속' 대안공간루프 외 6회의 개인전과 'Earth Heat Flow: the Visitor Who Returns to Solar Time' 베이징 비엔날레, '예술 평화 : 0시의 현재' 울산시립미술관, 'Fairy Tale' CASSTL 벨기에 안트워프 외 다수의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재훈 작가의 토크와 후속 질의응답으로 약 2시간 정도 계획된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작가의 작업세계에 대한 논의부터 작가로 살아가는 일의 의미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번 특강에서는 작가 본인의 작업들을 소개하면서 '가상세계의 회화적 공간 Painting Space in Virtual World', '디지털 레디메이드 Digital Ready-made', '사진과 포인트 클라우드 Photograph and Point Cloud' 등 가상현실기술을 통해서 회화적으로 공간을 다루는 방식을 함께 소개하였다.

국제디자인문화컨퍼런스 IDCC 2023 개최



모교 디자인학부가 주최하고 BK21 디자인리더 양성 사업단과 조형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디자인문화컨퍼런스 IDCC(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가 '대안 현실'을 주제로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렸다. 국제디자인문화컨퍼런스는 2020년을 시작으로 네번째를 맞았다. 올해 중점을 둔 논의는 디자인 전술과 프레임워크로서 사변, 세계 구축, 대안 현실에 대한 아이디어이다. 이를 가상공간, 비인간 실체와의 관계, 대안적 정치구조, 젠더 문제 및 새로운 경제 체제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다. 강연과 더불어 abake(아바케)의 전시 '어느 거울을 하고 싶나요?'가 열렸다.

마카조아상 수상자 선정



소미정(10동양/박사과정 재학) 동문이 올해 마카조아상을 받았다. '마카조아 신진작가상'은 마카조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으로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만들어 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모교 대학원 과정의 젊은작가들 중 우수한 활동을 한 작가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된 작가는 총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발표시점 1년 내에 모교 우석갤러리, 문화관 혹은 학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게 된다. 올해 지원자는 총 18명이었으며, 그중 1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올해 수상자인 소동문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수원 고색뉴지움에서 단체전 '다시, 바라보기'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회 회장 윤솔하, 부회장 박서영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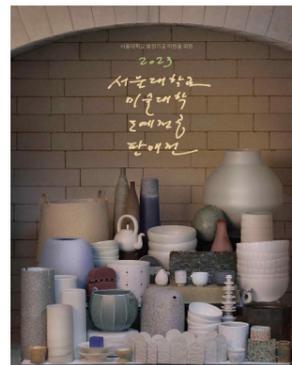
지난 11월 17일 제39대 모교 학생회 대표 선거 결과 선본명 아띠의 정후보 윤솔하(22동양), 부후보 박서영(22서양) 학생이 당선되었다. 투표율은 53.21%이었으며, 득표율은 67.12%이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었고, 몇몇 단과대 선거에서는 가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해 연장투표로 마무리되는 곳도 있었다.

당선소감 학생회 아띠



안녕하세요, 제 39대 미술대학 학생회 [ART:I 아띠]의 회장을 맡게 된 동양화과 22학번 윤솔하, 부회장을 맡게 된 서양화과 22학번 박서영입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아띠]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주신 재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진행할 사안은 크게 교류 및 학생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일치기로 변경되었던 새내기 배움터를 1박2일로 진행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미대 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띠] 인스타 계정(@snu\_arti)으로 미대 소식 공유해 드리니, 많은 관심과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띠는 학우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자 미술대학 건의함을 개설하였고, 아띠 인스타 계정 상단에도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대를 위해 힘쓰고,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도예전공 판매전



모교 공예과는 도예전공 학생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예전공 판매전'을 개최한다. 작품을 판매한 수익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 ▶날짜: 2023. 12월 1일 ~ 2023. 12월 3일
- ▶시간: 10:00 ~ 18:00
- ▶장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2동 210호

디자인과 졸업주간, 텀블벅 후원 144% 달성



모교 디자인과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모교 49동에서 'The Great Bump'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졸업주간'을 개최한다. 졸업주간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워크숍,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본격적인 졸업전시에 앞서 온라인 후원 플랫폼 텀블벅에서 졸업주간 프로젝트 후원을 받았고 목표 금액의 144% 이상을 달성하기도 했다. 프로젝트 후원자들은 졸업전시 도록, 키링, 노트를 리워드로 수령 받게 된다. 디자인과는 2018년부터 졸업전시를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졸업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열어왔다.

졸업전시 일정

학사 1차: 서양화/공예

- ▶기간: 2023.11.30(목)~12.3(일)
- ▶장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51동, 52동 74동

학사 2차: 동양화/조소/영상매체미술/디자인

- ▶기간: 2023.12.7(목)~12.10(일), 디자인과: 11.30(목)~12.5(화)
- ▶장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49동, 50동, 51동, 52동 74동

석/박사

- ▶기간: 2023.12.7(목)~12.17(일)
- ▶장소: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실

- 개막 행사 ▶시간: 2023.12.7(목) 14:00 ▶장소: 서울대학교미술관 렉처홀

서울대소식



**건강주간 개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023 서울대학교 건강주간'을 개최했다. 서울대 학생처 장학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본행사는 문화관 앞 및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 장학복지과는 이 행사가 학내 구성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기찬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1일 10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된 서울대 건강주간에는 간호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체육교육과), 보건진료소, 생활협동조합 외 다수의 학내 기관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행사 동안 건강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지하 연식당과 학생회관 식당에서는 각각 랍스터 정식, 전복왕갈비탕 정식 등 건강 특식을 제공했다.

**'기록으로 보는 대학신문 70년' 전시 개최**



서울대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과 대학신문(주간 한정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중앙도서관 본관 2층 북카페에서 '대학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전시: 기록으로 보는 대학신문 70년'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학신문은 1952년 2월 4일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의 신문으로 창간되어 지난 2022년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학교 내 유일의 공식 언론으로서 학내 사안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을 충실하게 기록해 온 대학신문의 지난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기획되었다고 중앙도서관은 밝혔다. 전시 내용은 연도별 대학신문 주요 원본자료, 다큐멘터리 영상, 대학문학상 수상作品集 등 주요 기록물과 대학신문의 역사, 주요 사진 자료 등을 담은 포스터이다.

**총학생회 무산**



서울대 제64대 총학생회 본투표가 지난 11월 17일 오후 9시 잠정투표율 24.40%로 마무리됐다.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직후인 10시경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98조에 의거해 제64대 총학 선거 무산을 선언했다. 이후 진행된 선관위 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94조에 의거해 연장 투표 시행 여부를 의결했다. 회의 결과 선관위는 연장 투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결정 이후 8시간 동안 단일 출마한 선본 '파도'가 재의를 요청하지 않아 결국 선거 무산은 확정됐다. 조재현(20자전) 선관위장은 "잠정 투표율을 고려했을 때 연장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 성사는 힘들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제64대 총학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총학생회칙 제71조와 제72조에 근거해 단과대학총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단과대총학생회연석회의(연

석회의)를 구성한다. 연석회의 의장과 부의장, 연석회의는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관악수목원 26일간 가을철 시범개방**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서울대 농생대 관악수목원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6일간 시범개방했다. 비개방 수목원인 관악 수목원은 지난해 서울대와 안양시가 교류 협력을 체결한 이후 봄가을철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개방기간엔 산림치유 프로그램(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목공체험프로그램(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등을 운영했다.

**관악사 '관장과의 대화' 개최**



지난 11월 7일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920동에서 '관장과의 대화: 스트리트관장파이터'가 열렸다. 서울대 관악사 자치운영위원회(자치회)가 이번 행사를 주관했으며 관악사 여명석 관장(건축학과), 관악사 이주영 교무·학생 부관장, 행정실 직원 등이 참석해 학생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사전에 수합된 120개 의견 중 자치회가 선정한 8개의 의제가 다뤄졌으며,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등이 참여했다. 이날 다뤄진 안건으로는 관악사 동아리실 예약제 도입 이유 소명, 방충·방제 개선에 대한 논의, 생활 시설에 관한 불만 등이 있었다.

**총학주간 다전공 활성화 포럼 개최**



지난 11월 9일 자연대 대형강의동에서 총학생회가 주관한 '학문의 선을 넘어보사: 무학과와 다전공을 중심으로' 포럼이 열렸다. 총학생회 강민주 교육국장(20불어교육)은 "지난 7월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다전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포럼을 통해 본부 측의 고민과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라고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에도 유준희 학생처장(물리교육)을 비롯한 교직원, 자유전공학부·인문대·자연대 학생회,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전공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장기적 방향성으로서의 무학과 입학제에 관한 논의도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대학원생 인권지표·실태조사 발표회 및 라운드테이블**

서울대 인권센터가 주최한 '대학원생 인권지표·실태조사 발표회 및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11월 8일 법학강의동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권지표 발표는 연구책임자인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가 맡았고,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대학원생 패널과 교수 패널이 각각 4명씩 자리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준정 인권센터장은 "그동안 인권센터가 폭언이나 성희롱과 같은 개별 사건들의 해결에는 주력해 왔으나 통계 지표와 관련 연구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인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연구가 대학원생 인권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의 시작"이라고 본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본 연구는 약 한 달간 대학원생 1,715명(모집단의 15%)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는 크게 자기 인권 보장 인식과 노동환경 만족도의 두 가지 영역에 관해 다뤘다. "자신의 인권이 서울대 대학원에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에 동의하는 정도인 자기 인권 보장 인식은 56.5%, 노동환경 및 조건에 만족하는 정도는 42.8%에 그쳤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도쿄교우회와 제3차 친선교류회 개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와 도쿄대교우회의 제3차 친선교류회가 지난 11월 10일 도쿄대 혼고캠퍼스 산상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친선교류회는 김종섭 총동창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무네오카 쇼지 도쿄대교우회장,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 윤덕민 주일본대사, 김덕길 재일본서울대동창회장 등 양측 관계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미래세대를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유총장은 주제 강연에서 "한·일 양국 미래 세대들이 함께 소통과 탐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후지이 도쿄대 총장은 "서울대와 도쿄대는 이미 2016년에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으며 금년 3월에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5회 '도쿄대·서울대 포럼'을 본교에서 개최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양교 졸업생들 간의 친선교류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폭넓고 친밀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7년 개교 150주년을 맞는 도쿄대는 지구촌의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며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사회적 분열과 디지털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휴머니티의 고양"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니 온라인으로도 서울대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측 일행들은 공식회의에 앞서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쿄대의 19세기 유럽풍 건축양식의 건물과 교정을 둘러보았다. 이날 뷔페식으로 베풀어진 만찬 석상에서는 산발적으로 서울대와 도쿄대 재학생들 간에 현재 동아리 수준의 양교 바둑대회는 수년째 개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양국 젊은이들이 운동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협의해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김종섭 회장은 도쿄대교우회 무네오카 회장과 도쿄대 총장 등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으며(위 사진) 도쿄대교우회 무네오카 회장도 김종섭 회장, 유홍림 총장, 김덕길 일본총동창회장에게 감사패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도쿄대교우회 무네오카 회장도 김종섭 회장, 유홍림 총장, 김덕길 일본총동창회장에게 감사패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조찬포럼 '테크노 빅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인류'



지난 11월 9일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테크노 빅뱅: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인류'를 주제로 서울대총동창회 조찬포럼을 진행했다. 그가 말하는 '테크노'는 각자가 가진 기술이 끊임없이 상호 연결되고 진화하는 것을 뜻한다. 인류 상상의 영역을 허무는 신기술로 인해 기술의 연쇄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테크노 빅뱅'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장회장은 기술에 밝은 언론인으로서 AI 시대 미디어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다. "AI에 잡아 먹히느냐, AI를 컨트롤해서 인류 발전에 활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전 세계 미디어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곡점을 맞아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과 협력해서 AI를 기사 작성 도구로 활용하는 실험 중이죠. AP통신은 오픈AI와 계약을 체결해 뉴스 콘텐츠를 챗GPT 학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이자 IT 등 과학기술에도 관심과 애정이 깊기로 잘 알려진 그다. 한편, 장회장은 한국

신문협회장,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1998년부터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이끄는 매경미디어그룹은 국내 최고 유료 부수를 확보한 매일경제신문과 종합편성채널 MBNTV, 주간지 매일경제 이코노미, 월간지 럭스맨 등을 운영한다.

수요특강 '생성형 AI의 현황과 주요 이슈'



서울대총동창회 수요특강이 지난 10월 25일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에서 '생성형 AI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상기 테크프런티어 대표의 진행하에 열렸다. 이날 특강에 총동창회 조완규(48생물) 고문, 이경형(66사회) 상임부회장, 송우엽(79체교) 사무총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AI 연구과제가 인식에서 생성으로 옮겨갔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경향이 AI가 "인식 측면에선 이미 인간 수준에 도달"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대표는 생성형 AI에 따라오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인터넷에 올려진 문장과 이미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허위 사실, 가짜 이미지를 너무나 그럴듯하게 꾸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연구 단계를 넘어 사업화 단계로 발전하면서 이권을 둘러싼 견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한대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을 졸업,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삼성컴퓨터 등 국내 유수의 연구소와 기업에서 활동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대표 및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이후 카이스트, 세종대 교수를 거쳐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

LA신년 음악회 개최



서울대총동창회와 서울대남가주동창회가 지원하고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이 후원하는 '코리아-LA 챔버 오케스트라'의 남가주 신년음악회가 내년 1월 7일 오후 4시 UC어바인 캠퍼스의 바클레이 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디즈니홀 콘서트에서 열린 서울대총동창회 기획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평화음악회'의 앵콜 공연이다. 이번 공연도 금난새 음악감독이 연출과 지휘를 맡았다. '평화와 화합의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이날 공연은 한미문화 교류의 시간이자 전쟁과 지진 등 세계적 재난으로 고통받고 난민이 된 이웃들을 위해 구호 성금을 모금하는 위로의 공연이다. 이 밖에 금난새의 지휘 아래 신선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들이 선보인다. 이번 행사의 미주 쪽 진행을 맡은 서울대 남가주동창회(회장 김경무) 측은 "지난번 디즈니홀에서의 성남시 교향악단과 금난새 지휘자의 공연에 대한 호평, 그리고 세계적 재난에 대한 평화운동의 필요성으로 새로운 타이틀과 레퍼토리로 추진하게 됐다"며 "아울러 국제적인 전쟁과 지진 등의 재난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도 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비납부 동문에게 탁상용캘린더 증정



서울대총동창회는 회비를 납부한 동문들에게 서울대 미술대학 동문 작가 작품이 수록된 '2024 탁상용 캘린더'를 증정한다. 2024년도 총동창회 회비는 일반회원 5만원, 이사회원 15만원이다. 평생회비는 50만원(만 65세 이상 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 탁상용캘린더는 미대 동문작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다.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영선(79조소) 본회 부회장 모친상 11월 16일	
안선숙(74회화) 본인상 11월 23일	
정현도(71조소) 본인상 11월 28일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유튜브에서 동창회소식 보세요~

본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창회 행사를 기록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youtube.com/@snuartalumni?si=8-bOgTTNecWwgOI2>



본회 행사 '숨은예술가들', '그림속 풍경을 찾아서'의 공식 영상 등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일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자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행일 : 매월 말일
- 판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플(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100*80	6,6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 동문미술관탐방

## 백악미술관

관장 김현일(06동양)



## 백악미술관을 소개한다면?

백악미술관은 1983년 서예가 일중 김충현 선생님이 관훈동에 설립한 전시공간입니다. 본래는 3층에 선생님 기념관이 있었지만 2021년 기념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미술관 전체를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 전시가 주를 이루지만, 선생님 생전에는 공예, 동양화,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열렸고, 미술대학 동문 분들 중에도 백악미술관에서 전시를 가졌던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중의 집\_보현재

## 보현재는 어떤 곳인지?

김충현 선생님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거주하시던 평창동 가옥을 재단장해 '일중의 집 보현재'라는 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선생님이 타계하신 후로는 아드님이 거주하시다가 2021년 일중선생기념사업회에 가옥을 기부하면서 기념관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취향이 공간 곳곳에 스며있어 서예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작가가 작품에 담고자 한 운치와 멋을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차와 간단한 다과도 즐기실 수 있고요. 서화를 접해본 적 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는 서예, 전각 수업들도 비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일중선생기념사업회의 성과는?

일중선생기념사업회는 2007년 선생님의 업적을 알리고 한국 서예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회에서는 격년으로 일중서예상과 일중서예우수작가상을 번갈아 가며 시상하고 있는데, 전자는 원로 서예가를, 후자는 중견 서예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현 선생님은 평생 서예 저변 확대와 후학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사업회도 상을 제정해 서예가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술하신 교재들과 원고들을 정리해 재출간하고 보급하는 것도 사업회의 주된 일입니다. 서예상의 경우, 시상 범위를 다른 예술 장르나 학술 분야로 확장해 나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서화전시 위주인데 탈장르시대에 대비할 계획이 있는지?

동양화의 재료와 기법이 다양해진 만큼 서예도 그동안 조금씩 변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미술계에 알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현대 서예의 새로운 변화들을 선보이는 전시가 많아지면 서예도 다

른 미술 장르와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미술계도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일중 김충현 탄생100주년전

## 그동안 기획한 전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는?

김충현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김충현 선생님은 제 할아버지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철들 무렵부터 병석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추억이 많지 않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할아버지의 서업을 재조명하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뒤늦게 할아버지와 가까워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관장직을 맡고 처음으로 크게 기획한 전시이기도 하고요. 서예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해 간 과정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열린 백악미술관 개관 40주년전도 기억에 남네요. 할아버지 작품과 일중서예상, 우수작가상 수상자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였는데,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던 서예가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변화해 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동시대 서예의 흐름을 다루는 전시를 기획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백악미술관 개관40주년전

## 본회(미대동창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지금은 백악미술관에 대한 인식이 서예전문 전시공간으로 고착되어 있는데요. 예전처럼 폭넓은 장르와 세대를 포용하는 공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래 백악미술관 별관 1,2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별관 2층이 공실로 남게 되었는데, 미술과 관련된 공간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모교 동문들을 위한 행사나 수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백악미술관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일 동문은 서울대 동양화과와 고고미술사학과를 복수전공 졸업했다(2009). 서울대 대학원 미술경영학과 석사학위(2017)를 취득했으며 현재 백악미술관 관장이자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2019~)이다.

**인천아시아아트쇼 김창열(48회화) 외**

제3회 인천아시아아트쇼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23일 VIP프리뷰에 이어 일반오픈은 24일에서 26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에서 세계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화랑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가하였다. 인천지역의 1세대 작가와의 만남과 청년작가 발굴을 위한 장을 비롯해 세계적인 거장인 조지콘도, 요시모토,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유치하였고 김창열(48회화), 이우환(56회



화), 심문섭(61조소), 김종학(73회화), 서용선(75회화), 한석란(71조소), 김병중(74회화), 이민주(76회화), 윤동천(81회화), 박동진(82회화), 김선학(83응미), 고완석(84동양), 이강화(81회화), 김현지(88동양), 이광수(88동양), 고영훈(90동양), 성석진(90공예) 등등이 참가하여 K-art의 세계적 진출의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 3대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인천아시아아트쇼는 대성황을 이루어 6만여 명이 관람했다.

**자문박물관축제 개최 이순중(70응미)**

이순중 동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자문박물관포럼이 주최하는 제11회 자문박물관축제가 '자문밖 열림'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자문밖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센터'에서 1000석 규모의 개막공연 '오프닝 콘서트', 주민연합전시회 '자문밖 재발견', 지역 공방 및 업소들이 한 곳에 모여 '자문밖 예술상점', '자문밖아트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에서는 '자문밖 미래포럼'과 'JAR(자문밖아트레지던시) 아티스트 토크', 지역 내 갤러리의 도슨트 투



어와 결합한 '자문밖 예술로 트레킹' 등이 개최되어 의미를 더하였다. 2013년 모교 이종상(예술원 회원) 동양화와 명예교수와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등에 의해 창립된 자문밖문화포럼은 예술을 통한 창조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간 자문박물관축제, 자문밖창의예술학교, 자문밖아트레지던시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군산대 '정담북클럽' 초청강연 김정희(76회화)**

김정희 동문이 지난 11월 2일에 국립군산대학교 주최 '정담북클럽'에 초대되어 강연했다. '정담북클럽'은 군산북클럽네트워크가 군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군산대 인문도시센터와 함께 개최한 행사다. 군산세관의 문화공간 '인문학창고 정담'에서 지난 10월부터 오는 1월까지 16주간 매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북클럽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월부터는 김동문을 시작으로 '바리데기'의 황석영 소설가 등 다양한 작가, 번역가 등을 초청해 강연하고 있다. 김동문은 이번 초청 강연에서 메리 앤 스타니



스제프스키의 책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를 미술사학자로서 시민들과 함께 읽었다. 그는 이날 '미술과 제도'에 관해 강의했으며, 책에 언급된 사례나 개념, 번역의 오류를 짚어내어 미술이론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바로잡기도 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 후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현대미술사 전공했으며 독일 함부르크대 미술사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모교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모교 명예교수이다.

**'Diverse Signatures' 한-인도 작가교류 이민주(76회화) 외**

이민주, 한근석(81응미), 민수정(82회화), 신하순(83동양), 조은령(87동양), 김명은(17동양) 등등이 지난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Diverse Signatures'라는 타이틀로 인도 작가들과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가졌다. 11월 5일 Contemporary Art Gallery, Kota에서 열린 전시에는 위 동문 외에 전성규(81회화), 이은숙(81회화), 류지선(89서양), 박소영(91동양) 등등의 작품도 같이 전시되었으며, Chambal River 등의 유적들을 답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11월 8일 인도 뉴델리의 Nayan Naveli갤러리에서 열린 인도 중견작가들과의 프레젠테이션



이션 시간에는 인도의 많은 미술관계자들과 애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교류프로그램은 KICAA와 AOVVM의 이십여 년간 신뢰로 지속된 교류의 인연으로 성사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현지의 여러 일간지 및 매스컴에 보도되었다. 모든 일정은 찬디가르 라릿까라 아카데미의 빔말호트라 의장의 주선으로 오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릴 Govt. Museum&Art Gallery에서의 전시로 마무리된다.

**'일여(一如)-하나가 되다' 퍼포먼스 참여 임영선(79조소)**

임영선 동문은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남시 모란민속 5일장에서 개최된 행사 '모여모여모란' 중 진행된 퍼포먼스 '일여(一如)-하나가 되다'에 참여했다. 이 퍼포먼스는 가천대 회화 및 조소과 학생으로 구성된 아트페어셀러 16개 팀에서 선별된 학생, 그리고 모란시장상인대표, 시민대표들이 참여로 구성되었다. '모여모여모란'은 모란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가 주최한 참여형 축제다. 임동문이 함께한 이 퍼포먼스는 아르코사업 중 대학예술가지원 프로그램 오픈기념행사일원으로 전통놀이 강강술래와 탑돌이를 모티



브로 했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3년 중앙미술대전 조각부문 우수상, 1984년 동아미술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조소전공 교수로 지내고 있다. 그는 한가람미술관, 뉴욕 스테판스탁스갤러리, 뉴욕 리브메그년갤러리, 토탈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일민미술관,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폴란드 미디어이션비엔날레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종섭미술상 수상 윤동천(81회화)**

윤동천 동문이 지난 11월 9일에 제35회 이종섭미술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사가 주관하는 이종섭미술상은 1986년 이종섭 30주기에 결성된 기념사업회 모임을 1988년에 조선일보사가 후원하며 제정되었다. 윤동문은 한국 현대미술의 다원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로 일상의 예술성을 드러내는 다방면의 창작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종섭미술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심사에서 윤동문이 회화·조각·사진·설치 등 형식을 넘나들며 소통해 온 지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식은 서울 광화문 아트조선스페이스에서 열렸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수상기념전 '이면 The Other Side'는 시상식과 함께 개막하여 지난 11월 21일까지 열렸다. 수상기념전에는 남도의 절터에서 마주친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5.2m의 대작 '자라나는 함성' 외에도 정치·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신작들이 전시되었다. 윤동문은 30년간 모교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클리블랜드미술관 심포지엄 논문발표 최석원(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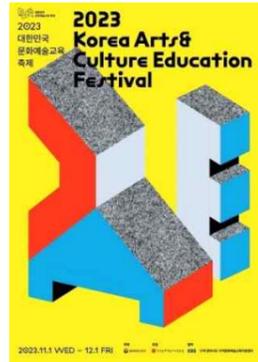
모교 동양학과 최석원 교수가 지난 11월 4일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China's Southern Paradise: Treasures from the Lower Yangzi Delta>(2023.9.10-2024.1.7)의 연계 심포지엄에서 논문 'Portraying Eremetic, Archaic, and Syncretic Identity: Zeng Jing's Portrait of Weng Dehong'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최교수는 명나라 말기의 초상화가 증경(1564-1647)이 시인이자 서예가였던 옹덕홍의 은일적 정체성, 복고주의 취향,



삼교합일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초상화를 그려냈음을 논의하였다. 특별전은 신석기시대부터 18세기까지 중국 강남지역에서 제작된 옥기, 도자기, 회화 등 2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연계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의 발표자 11명이 출판작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서울대 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최교수는 2022년 모교 동양화과에 부임해 미술사와 미술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심상용(81회화) 외**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84산미)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 곳곳의 문화예술 공간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했다. 첫 대규모 전국 행사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는 올해 2월 문체부에서 발표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정책방향에 맞춰 '누구나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깊게'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향유자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전환과 미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핵심주제로 기획됐다. 지난 11월



1일부터 이틀간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개막행사가 열렸다. 이날 박은실 동문이 개회사를 했으며 뒤이어 진행된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의 대담 '문화예술의 능동적·창의적 향유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에는 김형숙(85서양) 모교 동양화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다. 포럼 2일차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주제로 열렸으며 심상용 서울대 미술관 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인스타그램 arte\_ka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미학 최경원(86산미)**

최경원 동문이 지난 9월 11일 '디자인 미학'을 출간했다. 미적 안목을 기르고 싶은 현대인을 위한 최소한의 디자인 미학 지식을 담은 이 책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디자인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예술적 대상을 포착해 낸 예술가들을 예술의 존재 양식에 대해 살펴본다. 또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통해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들을 조명하며 디자인의 본질을 파헤치며, 앞으로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한편 모교 산업디자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최동문은 모교와 연세대, 명지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성균관대 디자인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에서 한국 문화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10년에 현대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디자인 브랜드 '훗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 '끌리는 디자인의 비밀', 'Great Designer 10', '디자인 인문학', '알레산드로 멘디니',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Good Design' 등이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임용 이종후(90서양)**

이종후 동문이 제주도립미술관장에 임용되었다. 이동문은 지난 10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 전형 시험과 2차 면접시험이라는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 임명장을 받았다. 이동문의 임기는 2025년 11월 19일까지다. 제주 출신인 이동문은 1971년생으로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와 판화를 공부했다. 2014년 9월에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창작 작업뿐만 아니라 기획 업무도 꾸준히 맡아 왔다. 탐라미술인협회, 제주전업미술가협회, 창작공동체 '우리', 제주판화가 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제주국제아트페어&페스티벌 총감독, 제주미술제 총감독, 아트페스타인 제주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제주도는 이동문을 '각종 예술제를 기획·운영한 경험한 경험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했다. 제주도는 "제주 출신 전문가의 도립미술관장 임용으로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전시 기획 및 관리를 통해 도립미술관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림책 '여름비' 신경아(96서양)**

신경아 동문이 그림책 '여름비'를 지난 10월 20일에 출간했다. '여름비'는 한창 더운 날, 예고 없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주변 공기를 뒤집고 온통 빗소리에 빠져들게 한 뒤 불현듯 활짝 개어 사방 만물을 바꿔 놓는, 여름비의 생명력 넘치는 청량함을 노래한 시 그림책이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후 미술 교사로 일하고 있는 신동문은 '아이보리색 털실처럼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아이보리안 신경아'라는 이름으로 그림책을 낸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



름비'는 신동문의 첫번째 그림책이다. 그림책 출간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삼성동 레팍세에서 원화전도 개최하였다. 11일 오후에는 원화전 현장에서 '여름비 북토크'도 진행했다. 한편 신동문은 지난 5월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며,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교육상이다.

**올해의 작가상 2023 후원작가 선정 전소정(01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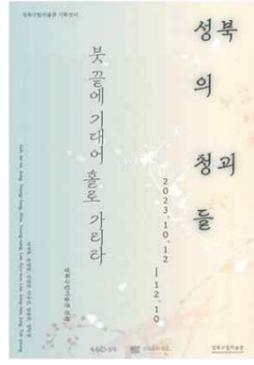
전소정 동문이 '올해의 작가상 2023'의 후원작가 4인에 선정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동문 등 후원작가 4인의 '올해의 작가상 2023'전이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올해의 작가상 2023'의 최종 1인은 전시 중에 진행될 2차 심사를 통해 오는 2월에 선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전동문은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적 시도와 감각의 번역을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 현재에 질문



을 던지는 작업을 해왔다. 전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다. 'Kiss Me Quick'(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5), '폐허'(두산갤러리, 서울, 2015)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동시적 순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8), 'What We See'(오사카 국립미술관, 오사카, 2013) 등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성북의 청과들: 서세옥(56회화/1929-2020) 외 5인**

모교 회화과 1회 졸업생인 산정 서세옥 동문과 그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신영상(54회화/1935-2017), 송영방(55회화/1936-2021), 정탁영(56회화/1937-2012), 이규선(57회화/1938-2014), 임송희(56회화) 동문 여섯 명의 한국화가를 소개하는 '성북의 청과들: 붓 끝에 기대어 홀로 가리라'가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개최된다. 이들은 성북동에 모여 살면서 매화와 난초를 가꾸었기에 언론을 통해 '성북의 청과들'이라고 소개된 바 있



다. 서동문은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미술사에 새로운 수묵추상을 구축한 작가로서 새롭고 진보적이며 추상적인 시각 언어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역사적인 선례를 확장하고 포용한 것이자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한 모더니스트 정신을 거부한 것이다. 1960년 서동문은 '묵림회(墨林會)'를 결성해 문인화에 뿌리를 둔 실험적 수묵화 장르를 개척하고 발전시켰다.

**'민복진과 전뢰진' 기획전 전뢰진(49응미)**

전뢰진 동문과 민복진 작가의 기획전이 지난 6월 20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본 전시는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의 개관 1주년 기념전으로 한국 구상조각의 거장인 작가 2인을 선정하여 열린다. 전동문과 민복진 작가는 56년 홍익대학교 졸업 동기로서 일평생 친구이자 동료 작가로 가까이 지내며 각자만의 개성있는 조형세계를 구축했다. 두 작가가 한국 조각사에 남긴 발자취를 중심으로 이번 전시를 구성했다. 양주시립민복진



미술관은 전후에 사람과 가족, 사랑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바탕으로 작업한 두 작가의 작업 중에 석조각과 드로잉 등 50여 점을 선정했다. 또한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 두 예술가가 주고받은 개인적인 서신과 기록 등 아카이브도 공개된다. 한편 전동문은 1949년 모교 응용미술학부에 입학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1953년 홍익대학교 조각과로 편입했다.

**베를린 특별회고전 이우환(56회화)**

이우환 동문이 내년 4월 28일까지 독일 베를린의 국립미술관인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에서 초청 특별회고전을 열고 있다. 이 전시에서 이동문은 60년간의 창작인생을 보여주는 5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동문은 2000년까지 유럽, 특히 독일에서 가장 자주 전시회를 했다. 독일이 그를 세계로 나아가게 지원한 셈이다. 함부르거 반호프가 소장한 미국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미술가 도널드 저드나 조각가 칼 안드레의 작품이 객체로서 작품 자체의 원료나 형태에 집중하는 반면, 이동문의 작품은 자연과 산업적 요소들과 공간 또는



관람객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이동문의 예술은 사물이 배치된 공간과 나와 의 관계를 세워주기에 따라 세계를 열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야생으로 돌아가자"는 화두를 던진다.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발언의 배경을 살필 수 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등 잇따른 전쟁을 언급하며 "너무 불안하고 또 폭력적이고 장래를 생각하기가 힘든 시점에 와 있다. 이는 인간의 문명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나전, 옷칠로 그리다' 나성숙(71응미)**

나성숙 동문은 오는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아산 모나무르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나 전통에 심취하여 북촌한옥마을에 봉산재, 서로재를 구입하여 전통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호수 위 갤러리 4개에 '북촌한옥마을5'를 주제로 옷칠 작품 30여점과 옷칠 소반 50개를 전시한다. 나동문은 5,000년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장점과 현대의 조형미에 맞추어 창작물이 변화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빛나는 자개, 검은 흑칠, 다양한 색옷칠을 사용하여 시각디자인 전공자답게 사물을 생략하



고 강조하며 북촌한옥마을을 묘사하고 있다. 그동안 예술의전당(2015, 2018), 공예진흥원(2022)에서 전시하였으며 올해 청주비엔날레에서는 서로재 학생 17명과 출품하여 소장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GSD)에서 연수했다. 작품은 쌍용건설, 현대자동차, 태양금속, 차병원, 세종호텔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이고 북촌아트센터 이사장이다. 전시회 오픈식은 12월 8일 4시 아산 모나무르갤러리에서 열린다.



www.bukchonart.com

# 나성숙 초대전

-나전, 전통옷칠-

모나무르갤러리

2023.12.8.금-2024.1.31.수

충남 아산시 순천향로624  
0507-1373-1006  
www.monamour.kr

후원광고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교원/1917-1990)**

장욱진 전 모교 교수의 회고전 '가장 진지한 고백'이 지난 9월 1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장교수가 진정으로 추구한 예술의 본질과 한국적 조형미의 구축이 한국미술사 안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회고전이다. 1920년대 학창 시절부터 1990년 작고할 때까지 약 60여 년간 장교수가 꾸준히 펼쳐 온 다양한 매체의 그림을 한자리에서 조망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1964년 일본인 개인 소장가에게 판매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가족'이 60년 만에 최초 공



개된다. 발견된 작품은 평생 가족 이미지를 그린 장교수 가족도의 전범(典範)이 되는 그림이자, 최초의 정식 가족도라는 측면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화면 한가운데 자리한 집 안에는 4명의 가족이 앞을 내다보고 있으며, 집 좌우로는 나무가 있고, 두 마리의 새가 날아가고 있다. 대상이 굳어지기 없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장교수의 조형 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편, 장교수는 한국 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2세대 서양화가이자, 1세대 모더니스트이다.

**박병욱 특별기획 조각전 박병욱(58조소 | 1939-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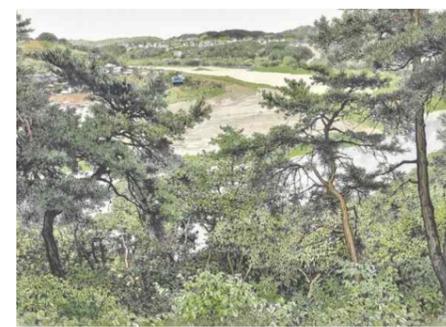
한국조각사의 인체조각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박병욱 동문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회고전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김세중미술관에서 2023년 특별기획전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 '벽, 그리고 향은 박동문의 2011년 유작전 이후 열리는 첫 전시다. 박동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970-80년대를 중심으로, 인간에 내재한 존재율과 사유의 문제를 심화시킨 인체 조각에 주목해 기획했다고 김세중미술관은 밝혔다. 1전시실은 1975년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향(向)'을 비롯하여 인체의 조형적 형상(形像)을



간결하고 세밀하게 구현한 '상(像)' 시리즈,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담은 '념(念)'과 '망(望)' 등 그의 대표적인 청동과 석조 조각 20점을 선보였다. 2전시실에서는 박동문의 일생을 담은 연보와 소품을 통해 당시 치열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박동문의 작품 세계와 삶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현대공간회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75년에 국전 조각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미술계에서 주목받았다.

**'3人3色'전 오용길(65회화) 최상철(65회화) 류장복(85회화)**

오용길, 최상철, 류장복 동문의 초대전이 지난 4월 개관한 중부권 최대 상업 갤러리인 네오아트센터(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37)에서 지난 11월 5일까지 개최되었다.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명예교수인 오동문은 한국 실경산수의 대가로서 일컬어진다. 그는 수묵과 채색의 조화를 통해 수묵담채 화법으로 경북 예천의 도정서원 등 작가가 둘러본 풍경들을 담아낸다. 최동문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돌을 굴러 작업하는 방식을 선보이며 최근에는 조약돌에 물감을 묻혀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무물(無物) 시리즈를 이어 나가고 있다. 류동문은 인상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눈앞의 이미지를 감각하고 기억을 더듬어 중첩시키는 회화를 추구하고 있다. 류동문은 27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화가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화가의 마음과 눈', '철암에서 그리고 쓰다' 등이 있다.

**Resonance of the Void2 이민주(76회화)**

이민주 동문의 60번째 개인전이 2024년 신년기획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17일까지 갤러리내일에서 열린다. 2010년 '공의 공명'이란 같은 주제로 강남에 위치한 부티끄모나코뮤지움에서 초대전을 한 이동문은 저세상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빛과 공명하며 그어진 선과 색으로 화면을 채운다. 명상 속에서 그어진 이동문의 유니크한 '공명필선'은 관객들과 파장을 교류하며 이십여년간 공명을 일으켜 왔다. 수묵담채로 한지에 그려진



300x120cm의 설치작품 5점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국의 미학을 현대적 감성으로 해석한 작품세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모교와 동대학원 졸업후 Biennale der papier kunst, BIAC, 청도비엔날레, 방글라데쉬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전남수묵비엔날레, 공주비엔날레 등 600여 국내외 단체전에 참가했다. 현재 한국-인도 현대작가 교류회 회장 및 모교 동창회 상임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Minjoo Lee 60th Solo Exhibition**  
**李珉柱 개인전**

Resonance of the Void II  
"공의 공鳴 II"

후원광고

2024.1.5.(금) - 17(수)

네 갤러리 내일  
Art Gallery Naeil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3(내일신문)B2  
02-2287-2399 www.gallerynaeil.com

**풍경\_다시보기 문혜정(74회화)· 정상곤(83서양)**

문혜정, 정상곤 동문의 판화 2인전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디휘 테갤러리에서 개최됐다. 문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조형예술대학 전문가연구과정을 졸업하였고 21회 개인전,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 독일 바덴뷔르템 주정부 예술기금 등을 수상하였고 한국과 독일에서 4회 국제전을 기획하였다. 문동문은 독일 유학 초기 작가로서의 결의와 강한 의지를 담은 '기둥이 있는 풍경'을 오늘에 소환하면서 지난 30년간 시류와는 거리를 두고 모색해 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가졌다. 정동문은 모교



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고려대 영상문화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 동서울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며 개인전 43회와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 노보시 비르스크 국제판화트리엔날레, 올덴브르크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등에서 수상을 하였다. 정동문의 판화는 비의도성을 드러내며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감각에 직접 작용하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적 충격과 여운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의 판화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또 하나의 몸 김세일(78조소)**

김세일 동문의 초대전 '또 하나의 몸'이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는 1월 14일까지 평창동 김종영미술관 신관 사미루에서 열려 김동문의 40년 작품여정을 소개한다. 여정의 시작은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불현듯 철사구조물로 촉각을 불러내는 '불가촉' 연작으로 옮겨갔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바람덩이' 연작에 몰두했다. '바람덩이'는 석고덩어리에 바람구멍을 송송 내고, 가시만 남은 듯한 형상을 한 작품이다. 이처럼 재료 측면에서 김동문의 작품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지만 덩어리와 인체에 천착하는 것은



한결같은 면모이다. 김동문은 그 이유를 "흙이든 밀가루든 내 손에 넣고 소유하려면 덩어리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0여 년 여정에서 온전히 수작업에 매진한 것도 이러한 신념의 연장이다.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인데코갤러리(1992), 모란갤러리(2002), 모란미술관(2008)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04년 선미술상을 받았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조형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감추어진 통로23- 입자와 파동 사이 전성규(81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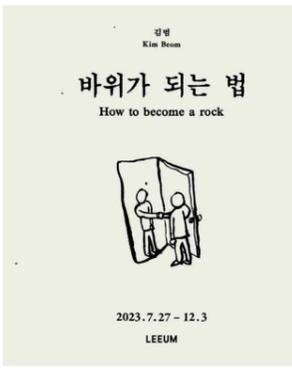
전성규 동문의 초대전이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베카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전동문의 회화론의 지경은 일상을 구성하는 물질계(입자)에서 아주 먼 곳에서 전해오는 비물질적 울림(파동)에 이르기까지 드넓다. 양자물리학이 그 안에서 입자와 에너지의 파동이 넘실대고 양자의 상호적 순환이 역동하는 이 이야기로 가는 가교(架橋)를 제공한다. 마치 신체 장기(臟器)의 일환인 듯 보이는, 구불구불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들의 연속과 중첩이 있다. 대체로 푸른 색조를 띠는, 일정한 굵기를 유지한 채 캔버스 전체를 돌아나가는 그것



들은 에너지의 순환이자 순환의 통로이기도 하다. 그 통로로 인해 우주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 일관성과 지향성, 의미를 지닌 살아있고 역동하는 것이 된다. 에너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고, 물질계와 비물질계 사이를 순환한다. 전동문은 그것을 생명의 통로, 영혼과 신체가 교호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hidden passage)'로 설명한다. 한편, 전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 호주 RMIT대학교 미술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현 목포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지내고 있다.

**바위가 되는 법 김범(82회화)**

김범 동문의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이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리움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여년간 작품세계를 총망라하는 회고전으로, 김동문의 최대 규모 전시이다. 김동문은 드로잉, 회화, 영상, 설치 등 폭넓은 매체를 사용해 미묘한 현실 속 사물에 유머러스한 상상력을 더한 작업을 한다. 그의 작업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우리 일상 속의 이미지가 가진 허구성을 드러낸다.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2002)에서 사물들이 엉뚱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한 예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익숙한 세상의 질서를 뒤바꾸어 새롭게 사고하도록 제안한다. 김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남미술상(1995)과 에르메스 미술상(2001) 등을 수상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종숙(82회화)**

이종숙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동문의 작품은 생명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연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자연과 생명과 삶을 관상(觀想)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통찰을 표현하고, 그것을 점, 선, 면, 도형이나 색 등의 이미지로 추상화한다. 하나의 화두에 대한 끊임없는 집요한 관상과 통찰의 실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독특함은 그의 작품이 관상 또는 명상 수행과 같다는 느낌을 준다. 생명을 지켜내고자 하는 생명의 부지런한 움직임, 그



움직임이 보여주는 삶과 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 생명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생명의 완전한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파리 및 국내에서 9번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파리, 런던, 스위스에서 아트페어에 참여했고 2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는 그룹터, 한울회, 창미회, Penta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준성 개인전 배준성(86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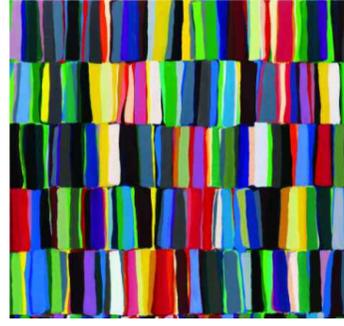
렌티큘러 선구자 배준성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갤러리그래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개인전은 실사와 그리기, 유동성과 정체됨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세계라는 이중성을 활용해 다중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을 렌티큘러(lenticular) 라는 필름의 활용을 통해 보여주었다. 렌티큘러는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서 여러 이미지를 교차로 볼 수 있는 특수한 재료로, 같은 화면에서 다른 이미지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특히 배동문의 신작 'on



the stage' 시리즈도 전시하였으며 그의 새로운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갤러리그래프 유정원 대표는 "따스한 정서를 바탕으로 예술의 생명력에 중요시하고 보다 친근하게 대중에게 다가가길 시도하며 작가의 작품세계를 다각도로 바라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배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현재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프랑스 퐁피두센터 등에 소장되어 있다.

**Void 빈 터 이상은(86서양)**

이상은 동문의 개인전 '보이드'가 지난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삼청동 아트파크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에서는 수많은 붓질로 사방에 흩어진 기억과 순간의 파편들을 화면 안에 끌어모으는 '시간 쌓기' 작업을 소개한다. 이동문은 작가노트에서 "이번 작업은 수많은 붓질이 모여 쌓여진 흔적은 있지만 색은 없어지는 빈터, 시간의 상실, 망각의 시간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지가 없는 시간을 그리는 작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이동문에게는 아직도 표현하고 싶은 시간과 기억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떠오른



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에는 이동문이 지난해부터 1년여간 작업한 작품 25점이 전시됐으며, 사방에 흩어진 기억과 순간의 파편들을 붓질을 통해 표현한 작품들을 모았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대학원 판화과, 연세대 영상대학원 영상디자인전공, 국민대 미술학과 회화전공 박사 등을 거쳤다. 현재 상명대 문화예술대학 미술학부 조형예술전공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백년 여행기 정연두(88조소)**

정연두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9월 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연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기억과 재현, 현실과 이미지, 거대서사와 개별서사의 역설적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퍼포먼스와 연출 중심의 사진과 영상, 설치 작업으로 국내외 미술계의 조명을 받아왔다. 이번 전시에서 정연두가 주목한 서사는 20세기 초 멕시코로 건너간 한인 디아스포라이다. 전시명인 '백년 여행기'는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40여 일의 항해 끝에 멕시코 유카탄 주의 수도 메리다에 도착했던 백여 년 전의 한인 이주기를 의미한다. 4점의 신작을 포함하여 총 5점의 영상, 설치, 사운드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무관해 보이는 존재를 연결하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이주와 이국성'의 주제에 다가간다. 한편, 정연두는 모교와 런던 골드스미스대학, 센트럴 세인트마틴대학에서 조소를 공부하였다.

**다른 방식의 존재 연습 주상연(89산디)**

주상연 동문의 개인전 '다른 방식의 존재 연습'이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닷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닷프레스와 닷미술관의 대표이자 사진작가인 주동문의 10년 만의 개인전으로, 동명의 사진집 출판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시력을 잃을 뻔한 사건을 통해 본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그는, 자신의 X-ray 사진 속 뇌혈관을 자연물과 연결하며 안과 밖의 풍경을 교차시킨다. 그가 바라본 장소와 대상은 기억 속에서 서로 조우하며 빛의 추상이 되고, 숲과 정원이 품고 있는 전시 공간 안에 흩뿌려져 관객



과 만난다. 이 전시는 지난 10년간 창작자로서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오가며 새로운 지평을 넓힌 주동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진 매체를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주동문은 모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SFAI)에서 사진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성곡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지상소에서의 개인전 등을 통해 작업을 보이고 있다.

**두번째 답변 이기영(91동양)**

이기영 동문의 개인전 '두번째 답변'이 지난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이화익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동문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그만의 특징적인 현대 수묵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한지 위에 얹게 바른 소석회 위에 먹으로 수없이 그리고 지우고 닦아내고를 반복한 흔적이 화면에 담겨있다. 이화익갤러리 대표는 "그는 작가로서 작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감독'이 되어 상황을 '연출'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라 생각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배우'가 되어 '표현'하는 과정을 담아낸 것이라 생각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풍경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고 소개하였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신만의 화법을 구축해 왔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라운딩 이문주(91서양)**

이문주 동문의 개인전 '그라운딩'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평창동 도암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보스턴, 디트로이트, 베를린 등 직접 거주했던 도시의 재개발 현장을 찾아가 이를 회화적 풍경으로 재구축해 왔다. 이번 전시 '그라운딩'에선 초기작부터 현재 작업까지 대표작 23점을 선보였다. 이동문은 "직접 발을 디뎠던 곳만 그린다"는 신념으로 실제 풍경들을 담아낸다. 전시의 제목인 '그라운딩' 역시 맨발로 땅을 걸으며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활동명에서 따왔다. 그의 초기 작품에선 사람의 존재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인물을 직접 드러내 감정적인 공감을 일으키는 대신, 폐허 속 남아있는 삶의 흔적을 드러내 관람자 각자가 갖고 있는 도시의 기억과 현재를 교차해 생각하도록 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4년 무렵에는 모교 근처인 봉천동과 시흥동 재개발 지역의 철거현장을 바탕으로 작업했고 2000년대 미국 보스턴으로 떠나 디스토피아적 도시 세계관을 심화시켰다.

**LIFE 김두진(93서양)**

김두진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플레이스막2에서 개최되었다. 김두진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하나는 '대지 시리즈', 다른 하나는 '해골 시리즈'다. 이 시리즈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비교적 명확하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그가 서양 고전주의 미술작품이 묘사하는 인간 신체 이미지들을 전복하려는 시도에서 이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그는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의 작품을 주로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부그로 회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구도는 그대로



로 유지한 채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화관, 인물들의 신체를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데 기여하던 모든 것을 제거한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두개골을 지탱하는 척추와 그를 에워싼 원통형 갈비뼈, 척추 끝에 붙은 골반과 그 양쪽에 접합된 다리뼈들로 이루어진 해골이 된다. 중요한건 어느 시대, 어느 대륙에서,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건 우리 모두는 그저, 누군가를 사랑하고, 목마름을 느끼고, 일하고 휴식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같은 몸짓을 한다는 것이다.

**연결된 시점들 오병재(94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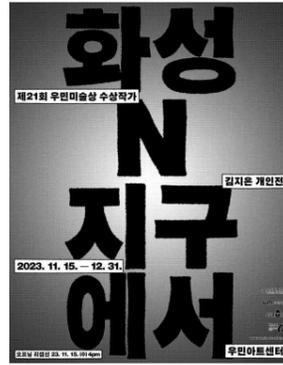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오병재 동문의 개인전 '연결된 시점들 Connected Perspectives'이 표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오동문은 그의 작품을 통해 독특한 시각과 예술적 접근 방식을 전 세계에 선보이며 사회 구조와 인간 관계에 대한 깊은 고찰을 제시한다. 그의 작품은 예술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시선과 생각이 공존하는 세계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사유를 제공한다. 그의 작품은 명암이 없는 강렬한 색으로 채워지는데, 이는 그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린넨이라는 까다로운 소재 위에서 1mm의 오차도 허용



하지 않는 노력과 고민이 담겨있는 그의 작품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내며 화면에 나타나는 평범한 일상 요소들은 단순한 대상이 아닌, 사회적 상징으로 작용한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런던의 골드스미스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금호미술관, 노암갤러리, 63스카리아트미술관, 홍콩 PMQ에서 여러 개인전과 더불어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다.

**우민미술상 수상작가전 '화성N지구에서' 김지은(95서양)**

김지은 동문의 우민미술상 수상작가전 '화성N지구에서'가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청주시 우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우민미술상은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미술상으로 만 40세 이상 중견작가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수상작가전은 지난해 김동문이 제21회 우민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개최된 전시이다. 김동문은 그동안 현대사회의 '제도화된 풍경'을 탐구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거시적 도시 환경에서



보다 일상적 공간으로 나아가, 장소성이 제거되고 기능적으로 배치된 신도시(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삶을 비장소(non-places)의 맥락에서 다각도로 조명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 크랜브룩예술대학에서 회화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집 같은 비장소'(갤러리 시몬, 2021) 등의 개인전을 선보였으며 다수의 미술상을 수상했다.

**춤과 노래 박제성(91산디)**

박제성 동문의 개인전 '춤과 노래'가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남양주시 월문리 갤러리퍼플에서 열렸다. 박동문은 동양철학과 현대과학의 개념들에 근거해 감각과 인식의 간극과 인간의 주체성을 주제로 미디어, 설치, 조각, 사진 등 여러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한다. 최근엔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로봇, 뇌파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풀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박동문은 책이나 신문을 쌓거나 펼치고 소지품들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무의미한 일상적 행위를 영상에 담는다.



그리고 이 영상과는 관계없는 시를 짓고 시에게 자신의 영상을 그 시에 맞게 변환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그는 인공지능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을 '데이터화된 인류 공통의 기억'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 과정은 영상에 인류 공통의 기억을 덧입히는 것과 같다. 박동문은 현재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채집자 허보리(99서양)**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허보리 동문의 개인전 '채집자'가 갤러리 플래닛에서 열린다. 허동문은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느질과 자수를 사용한 설치 작업, 사물을 의인화하여 스토리텔링을 부여한 회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왔다. 최근 그의 회화작품은 계절에 따라 반복되고 순환하는 식물의 세계를 인간 삶을 은유하는 모티브로 제시한다. 꽃이나 풀은 빠른 붓질과 화사한 색상으로 자유



분방하고 활기차게 표현되면서 그 형태는 재현으로부터 벗어나고 화면에는 리드미컬한 운동감과 질감이 남는다. 거센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꽃을 피워내는 식물은 연약하지만, 곳곳한 인간존재를 은유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힘이 있다. 허동문은 내부로의 침잠과 외부의 관찰이라는 채집의 두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간다.

**에르메스 메종 상하이 윈도우 전시 채지민(03서양)**

채지민 동문이 연출한 에르메스 메종 상하이의 윈도우 전시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에르메스는 이 프로젝트를 대중과 함께 예술적인 공감을 나누고 나아가 각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환원, 아티스트와 장인정신을 존중하려는 에르메스만의 가치 있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에르메스의 2023년 테마는 '놀라움을 주는 에르메스'다. 채동문은 이 테마에 맞춰 '압도적인 충돌'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선보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벽과의 충돌 후, 일상공간에 나타난 낯선 변화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2



차원과 3차원 사이에 존재하는 기묘한 공간을 통해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는 기존의 규범을 깨뜨리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여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불어넣는다. 이번 작품은 그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입체 설치작품이기도 하다. 한편, 채동문은 갤러리EM, 노블레스컬렉션, 옴스큐라, 아뜰리에아키에서 개인전을 진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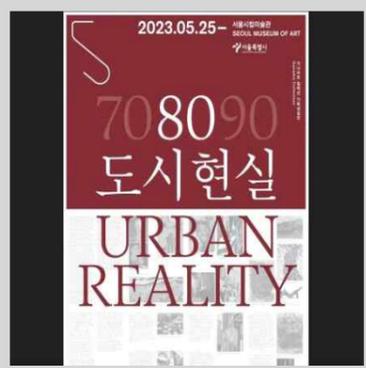
**Ampersand 김나현(석22동양) 정수연(18동양) 청이인(석22동양)**

김나현, 정수연, 청이인 동문의 전시 'Ampersand'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모교 74동(예술계복합연구동) 우석갤러리에서 열렸다. 앰퍼샌드는 and(그리고)를 의미하는 기호로,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부호다. 이름보다 형태로 익숙한 이 기호는 무언가 연결되고 지속될 것 같은 공통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전시 '앰퍼샌드'는 '&처럼' '시각 작업이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전시 서문은 밝힌다. 이번 전시에서 세 동문은 기호의 기본적 용도인 사회적 소통에 집중하여



각자의 작품이 가진 해석의 가능성과 보편성을 찾아간다. 전시 준비과정에서 이주영의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시각기호와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 자연 모티브를 중심으로', 남택운의 '시각예술의 기호학 연구', 윤자정의 '미술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의미'를 참고하여 기호학적 접근 방식에 대해 토론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과정은 아카이빙 형식으로 작품과 함께 전시되었다.

12월의 전시



**80 도시현실**

서용선(75회화)외 15명  
5.25-25.5.26  
서울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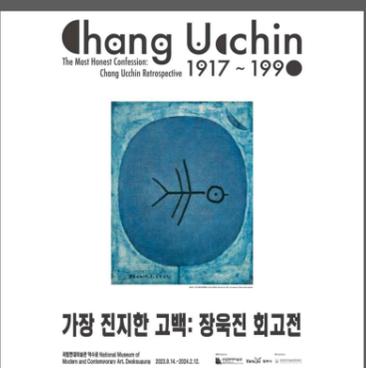
**아워세트**

손동현(98동양)  
9.5-12.17  
수원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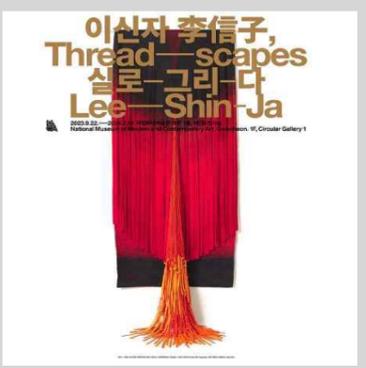
**백년여행기**

정연두(88조소)  
9.6-24.2.2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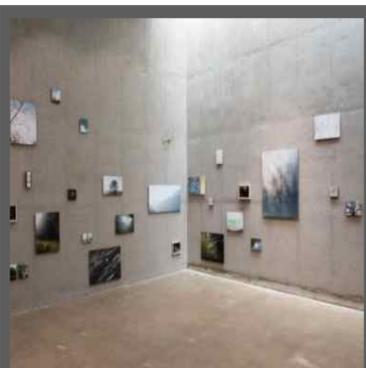
**장욱진회고전**

장욱진(교원/1917-1990)  
9.14-24.2.12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이신자, 실로 그리다**

이신자(50응미)  
9.22-24.2.1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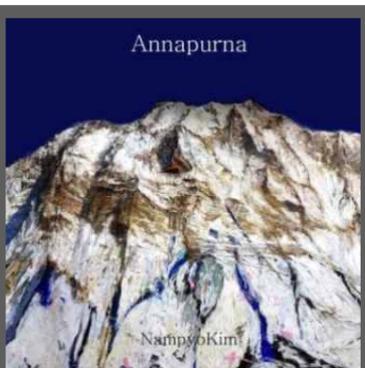
**다른 방식의 존재 연습**

주상연(98산디)  
10.7-12.31  
닷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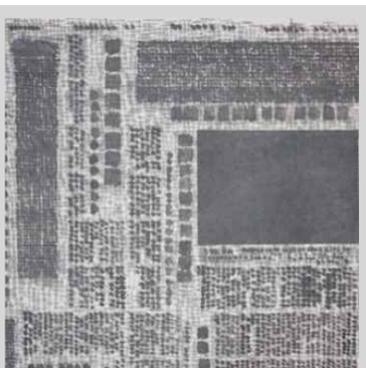
**바이블 도자전**

서동희(66응미)  
10.12-12.22, 24.1.12-5.22  
바이블 도자예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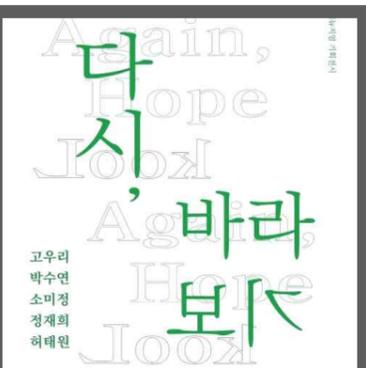
**Annapurna**

김남표(91서양)  
10.18-24.1.18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



**풍경**

임장순(03졸동양)  
10.30-12.22  
우민아트센터



**다시, 바라보기**

소미정(10동양) 외 4인  
11.8-12.29  
고색뉴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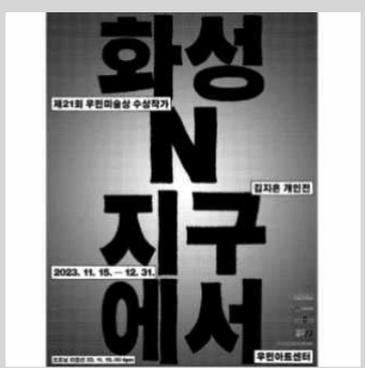
**Overtone**

전소정(05조소)  
11.8-24.1.7  
바라캣템포러리



**LINEAR A**

이다(96서양)  
11.11-12.10  
The Store



**화성 N 지구에서**

김지은(95서양)  
11.15-12.30  
우민아트센터



**회화의 전환**

최진욱(76회화)  
11.16-12.23  
두손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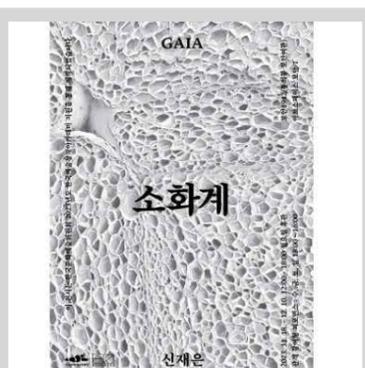
**또 하나의 몸**

김세일(78조소)  
11.17-24.1.14  
김중영미술관 신관 사미루



**리빙 위드 더 트러블**

윤소린(석13서양)  
11.17-12.10  
온수공간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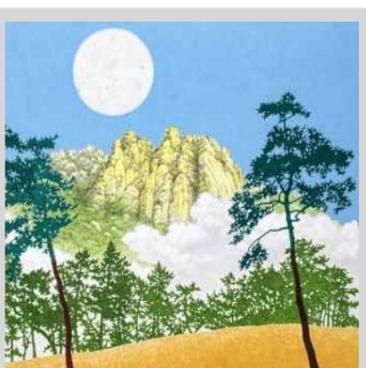
**GAIA-소화계**

신재은(04조소)  
11.18-12.10  
아트스페이스 보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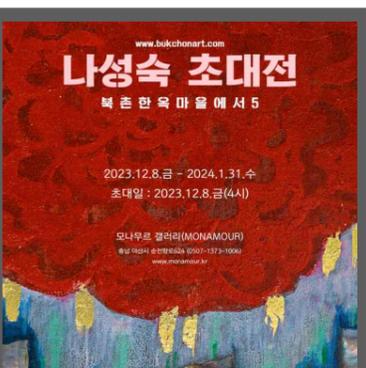
**Handmade Digital Image**

임현하(석21서양)  
12.4-12.16  
아트스페이스 류



**망산수도(望山水圖)**

나형민(91동양)  
12.8-24.1.31  
갤러리 그림손



**북촌한옥마을에서5**

나성숙(71응미)  
12.8-24.1.31  
아산 모나무르갤러리